

2. 라틴아메리카 경제지표 2016

권기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남미팀장)

I. 거시경제지표

항목	단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중남미 전체
GDP 증가율		-2.3	-3.6	1.6	2.0	2.3	3.9	-18.0	-1.0
1인당 GDP 증가율	% (연증가율)	-2.9	-4.4	0.6	1.1	0.7	2.6	-10.8	-2.2
소비자물가 상승률		37.5	8.7	3.8	7.5	2.8	3.6	794.0	37.7
명목 GDP	십억 달러	529.9	1,790.6	246.4	285.1	1,044.6	195.1	87.8	5,021.8
1인당 명목 GDP	달러	12,085	8,544	13,591	5,859	8,121	6,139	2,786	7,842
실업률	%	8.6	11.3	6.5	9.2	3.9	6.8	12.8	8.7
총외채		188	335	163	116	321	70	139 (*15)	1,543
수출	십억 달러	55.4	184.5	60.0	32.6	373.7	36.7	26.9	968.2
수입		55.7	139.4	55.9	43.8	387.0	35.1	23.4	967.8
무역수지		-0.3	45.1	4.1	-11.2	-13.3	1.6	3.5	0.6
외환보유고		37	366	39	47	177	62	12	829
경상수지	%	-2.8	-1.3	-1.7	-4.4	-2.7	-2.8	-17.7	-2.3
재정수지	(GDP 대비)	-4.5	-9.0	-2.8	-3.7	-2.6	-1.5	-14.7	-5.6

주 | 016년 국별 통계의 일부는 각 기관의 추정치, 베네수엘라 총외채는 2015년 기준
출처 | GDP증가율은 IMF; 1인당 GDP 증가율, 총외채, 외환보유고는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나머지 지표는 Global Insight 참조

II. 실물경제지표

1. 경제성장률

:: 2016년 중남미 경제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1.0%)을 기록함.

| 이 같은 저성장세는 대내적으로는 민간소비 및 투자 감소,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일차산품 국제가격 하락과 수출 감소에 기인함.

| 특히 국별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의 경기침체가 중남미 경기침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2015년과 마찬가지로 중남미 경제성장은 국별/소지역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임.

|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의 경기침체로 남미지역 경제는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2.4%)을 기록함.

- 특히 베네수엘라 경제는 3년 연속, 브라질 경제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음.
- 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가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페루를 제외하고 그 성장세는 전년에 비해 크게 둔화됨.

| 그에 반해 멕시코를 포함한 중미지역 경제는 2.4% 성장률을 기록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남미지역과 뚜렷한 성장 격차를 보임.

- 특히 멕시코를 제외한 중미지역은 전년보다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3.6%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시현함.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르헨티나	-1.0	2.4	-2.5	2.6	-2.3
브라질	1.9	3.0	0.5	-3.8	-3.6
칠레	5.3	4.0	2.0	2.3	1.6
콜롬비아	4.0	4.9	4.4	3.1	2.0
멕시코	4.0	1.4	2.3	2.6	2.3
페루	6.0	5.8	2.4	3.3	3.9
베네수엘라	5.6	1.3	-3.9	-6.2	-18.0
중남미	3.0	2.9	1.2	0.1	-1.0

주 | 2016년은 IMF 추정치
출처 | IMF.

2. 산업생산

:: 경기침체를 반영해 중남미의 산업생산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 국별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베네수엘라에서 산업생산이 하락세를 기록함.

- 특히 심각한 경기침체를 반영해 아르헨티나는 5년 연속,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는 3년 연속 산업생산이 하락세를 나타냄.
- 그간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던 칠레의 산업생산도 2016년 들어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섬.

| 그에 반해 콜롬비아, 페루에서 산업생산은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함.

주요국의 산업생산증가율 추이

(단위: %)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르헨티나	-7.7	-0.1	-1.8	-0.3	-4.6
브라질	-2.7	2.2	-2.9	-8.2	-6.8
칠레	3.4	3.4	0.3	0.8	-1.5
콜롬비아	-0.3	-1.3	1.5	1.7	3.6
멕시코	2.8	-0.4	2.7	1.0	-0.1
페루	6.1	5.9	2.4	3.2	3.8
베네수엘라	1.7	0.5	-2.5	-7.6	-11.3
중남미	-0.8	1.4	-0.7	-3.3	-3.4

주 | 2016년은 추정치
출처 | Global Insight.

3. 민간소비

:: 중남미 경제의 대표적인 성장엔진인 민간소비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며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킴.

| 2016년 민간소비는 전년보다 0.5% 포인트 감소한 -1.1%를 기록함.

| 민간소비 감소는 교역조건 악화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 감소, 고용 감소 및 실질 임금 증가세 둔화, 금융권의 신용대출 축소 등에 기인함.

:: 국별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에서 민간소비 하락이 두드러짐.

| 베네수엘라에서는 3년 연속, 브라질에서는 2년 연속 민간소비가 하락세를 보이며 경기침체를 부추김.

• 아르헨티나의 경우 2015년 대통령 선거의 효과로 일시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민간소비가 2016년에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섬.

|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민간소비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거나 정체 수준에 그침.

주요국의 실질민간소비증가율 추이

(단위: %)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르헨티나	1.2	3.7	-4.3	3.4	-1.1
브라질	3.5	3.5	2.3	-3.9	-4.4
칠레	6.1	5.5	2.4	1.9	2.1
콜롬비아	4.4	3.4	4.2	3.9	2.7
멕시코	4.6	2.5	1.8	2.2	3.0
페루	7.4	5.7	3.9	3.4	3.4
베네수엘라	7.0	4.7	-3.4	-8.2	-11.1
중남미	4.0	3.5	1.4	-0.6	-1.1

주 | 2016년은 추정치
출처 | Global Insight.

4. 투자

가. 투자(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 일차산품 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 감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경제 불확실성을 반영해 투자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함.

| 2016년 중남미 지역에서 투자는 대부분 국가에서의 투자 감소로 지난 3년 내 최악의 하락세(-5.3%)를 보임.

| 분야별로는 건설, 기계 및 장비부문에서의 투자 감소가 현저함.

| 국별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에서 투자가 하락함. 특히 베네수엘라의 경우 4년 연속, 브라질과 페루의 경우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함.

| 플러스 성장을 보인 칠레와 멕시코에서도 투자 증가세는 미미한 수준에 그침.

주요국의 실질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르헨티나	-6.9	2.3	-6.6	3.6	-4.6
브라질	0.8	5.8	-4.2	-13.9	-10.4
칠레	11.6	2.5	-4.3	-1.6	0.1
콜롬비아	4.7	6.8	9.8	2.8	-2.4
멕시코	4.8	-1.5	2.9	4.3	0.7
페루	16.4	8.1	-2.4	-5.2	-4.7
베네수엘라	23.2	-7.5	-18.3	-17.2	-29.2
중남미	4.0	3.1	-1.8	-4.8	-5.3

주 | 2016년은 추정치
출처 | Global Insight.

나. 투자율(GDP 대비)

:: 지속적인 투자 감소의 영향으로 중남미 지역의 GDP 대비 투자율도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임.

| 투자율은 2015년 19.4%에서 2016년 18.4%로 1% 포인트 하락함.

| 국별로는 베네수엘라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17.5% → 4.1%)를 보임.

::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가 중남미 평균 이하의 투자율을 보임.

|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투자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에는 각각 15.5%, 17.4%까지 하락함.

주요국의 투자율(GDP 대비) 추이

(단위: %, GDP 대비)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르헨티나	17.3	17.3	16.5	15.6	15.5
브라질	20.8	21.4	20.4	18.3	17.4
칠레	24.1	23.7	22.3	21.5	21.5
콜롬비아	24.6	25.0	26.3	26.2	25.7
멕시코	22.1	21.4	21.6	21.9	21.7
페루	26.3	26.2	25.1	22.7	22.0
베네수엘라	21.9	19.6	17.0	17.5	4.1
중남미	21.3	21.3	20.8	19.4	18.4

주 | 2010년 불변가격 기준
출처 | ECLAC.

5. 수출입,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가. 수출(상품수출)

::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일차산품 수출 가격 하락과 이로 인한 교역 조건 악화로 수출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임.

| 그러나 2016년 수출 감소폭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개선된 2.8%에 그침.

| 이 같은 수출 감소세 둔화는 교역조건 개선에 기인함. 2016년 중남미 지역의 교역조건은 2015년(-9%)과 비교해 1% 하락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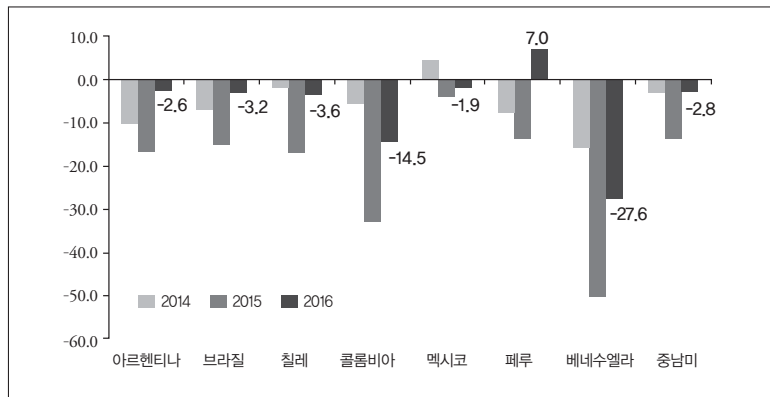
| 일차산품 수출국 중에서는 석유수출국의 교역조건이 가장 큰 폭의 하락세(-8%)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광물수출국이 2% 하락세를 기록함. 그에 반해 석유 수입국인 중미 및 카리브 국가들의 교역조건은 지난해에 이어 소폭 개선됨.

:: 국별로는 베네수엘라의 수출 감소세(-27.6%)가 가장 두드러짐.

| 그밖에 콜롬비아(-14.5%), 칠레(-3.6), 브라질(-3.2%)이 중남미 평균 이상의 수출 하락세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와 비교할 때 그 감소폭은 크게 둔화됨.

주요국의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출처 | Global Insight.

:: 지속적인 수출 감소로 중남미의 수출 규모는 2015년보다 274억 달러 줄어든 9,682억 달러에 그침.

| 국별로는 멕시코가 3,737억 달러로 가장 큰 수출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브라질(1,845억 달러), 칠레(600억 달러), 아르헨티나(554억 달러), 페루(367억 달러), 콜롬비아(326억 달러), 베네수엘라(269억 달러)가 이음.

주요국의 수출 추이

(단위: 10억 달러)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르헨티나	80.5	75.9	68.2	56.8	55.4
브라질	243.0	241.5	224.3	190.5	184.5
칠레	77.7	76.4	75.0	62.2	60.0
콜롬비아	61.6	60.2	56.9	38.2	32.6
멕시코	371.6	380.5	397.3	381.1	373.7
페루	47.5	42.9	39.6	34.3	36.7
베네수엘라	98.0	88.7	74.8	37.2	26.9
중남미	1,194.8	1,187.0	1,153.7	995.6	968.2

출처 | Global Insight.

나. 수입

:: 중남미 경제의 침체를 반영해 수입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임.

| 2016년 중남미 수입 감소율은 지난해보다 하락 폭(-9.3%)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8.4%를 기록함.

:: 국별로는 베네수엘라의 수입 감소세(-36.7%)가 가장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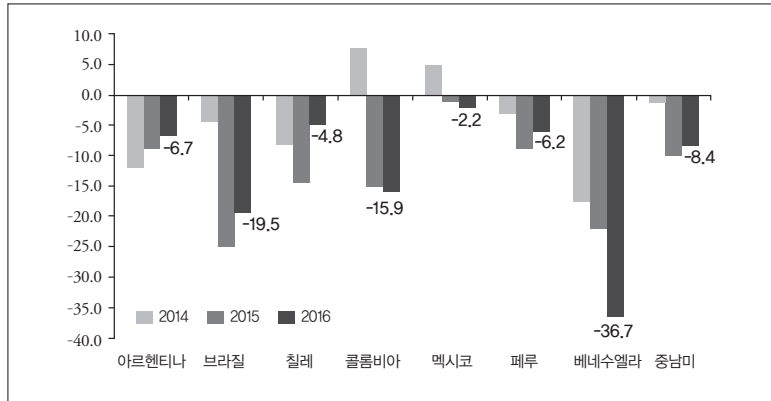
| 그밖에 브라질(-19.5%), 콜롬비아(-15.9%)가 중남미 평균 이상의 수입 하락세를 기록함.

::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2016년 중남미의 수입 규모는 전년보다 886억 달러 하락한 9,678억 달러에 그침.

| 국별로는 멕시코가 3,870억 달러로 가장 큰 수입 규모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브라질 (1,394억 달러), 칠레(559억 달러), 아르헨티나(557억 달러), 콜롬비아(438억 달러), 페루 (351억 달러), 베네수엘라(234억 달러)가 이음.

주요국의 수입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출처 | Global Insight.

주요국의 수입 추이

(단위: 10억 달러)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르헨티나	68.1	74.5	65.5	59.7	55.7
브라질	225.4	241.4	230.9	173.2	139.4
칠레	75.4	74.7	68.6	58.8	55.9
콜롬비아	56.6	57.1	61.4	52.1	43.8
멕시코	371.4	381.6	400.2	395.5	387.0
페루	41.0	42.4	41.1	37.4	35.1
베네수엘라	65.7	57.6	47.3	36.9	23.4
중남미	1,158.6	1,189.9	1,175.1	1,056.4	967.8

출처 | Global Insight.

다.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 수출 감소세를 크게 상회하는 수입 하락세에 힘입어 중남미의 무역수지는 2016년 소폭의 흑자(불황형 흑자)로 전환됨.

|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거나 개선됨. 특히 브라질의 경우 무역흑자가 174억 달러에서 451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함.

| 국별로는 브라질,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가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 반해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는 적자를 나타냄.

주요국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10억 달러)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르헨티나	12.4	1.5	2.7	-2.9	-0.3
브라질	17.6	0.1	-6.6	17.4	45.1
칠레	2.4	1.7	6.3	3.5	4.1
콜롬비아	4.9	3.1	-4.6	-14.0	-11.2
멕시코	0.2	-1.1	-2.9	-14.4	-13.3
페루	6.4	0.5	-1.4	-3.1	1.6
베네수엘라	32.3	31.1	27.4	0.3	3.5
중남미	36.2	-2.9	-21.3	-60.8	0.6

출처 | Global Insight.

:: 무역수지 개선에 힘입어 2016년 중남미의 경상수지적자는 전년보다 개선된 1,110억 달러를 기록함.

| 국별로는 멕시코가 280억 달러로 가장 큰 경상수지적자를 기록했으며, 브라질(-234억 달러), 베네수엘라(-155억 달러), 아르헨티나(-150억 달러), 콜롬비아(-126억 달러), 페루(-55억 달러), 칠레(-42억 달러)가 그 뒤를 이음.

• 브라질의 경우 큰 폭의 무역흑자 확대에 힘입어 경상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함.

주요국의 경상수지 규모 추이 (단위: 10억 달러)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르헨티나	-1.0	-12.2	-8.6	-16.7	-15.0
브라질	-73.6	-74.5	-104.4	-59.7	-23.4
칠레	-9.4	-10.3	-3.3	-4.7	-4.2
콜롬비아	-11.2	-12.5	-19.5	-19.0	-12.6
멕시코	-17.5	-31.9	-25.9	-33.1	-28.0
페루	-5.1	-8.7	-8.4	-9.5	-5.5
베네수엘라	2.8	4.5	3.6	-20.6	-15.5
중남미	-135.5	-160.4	-185.9	-178.7	-111.0

출처 | Global Insight.

:: 2016년 중남미의 GDP 대비 경상수지적자는 지난해보다 개선된 2.3%를 기록함.

| 국별로는 베네수엘라가 -17.7%로 가장 큰 경상수지적자를 기록했으며, 콜롬비아(-4.4%), 아르헨티나와 페루(각각 -2.8%), 멕시코(-2.7%), 칠레(-1.7%), 브라질(-1.3%)이 그 뒤를 이음.

| 대부분 중남미 국가들에서 경상적자가 개선된 데 반해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에서는 악화됨.

주요국의 경상수지 추이

(단위: %, GDP 대비)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르헨티나	-0.2	-2.0	-1.5	-2.7	-2.8
브라질	-3.0	-3.0	-4.2	-3.3	-1.3
칠레	-3.5	-3.7	-1.3	-2.0	-1.7
콜롬비아	-3.0	-3.3	-5.1	-6.4	-4.4
멕시코	-1.5	-2.5	-2.0	-2.9	-2.7
페루	-2.7	-4.4	-4.1	-4.9	-2.8
베네수엘라	0.7	1.2	1.3	-4.3	-17.7
중남미	-2.2	-2.6	-3.0	-3.2	-2.3

출처 | Global Insight.

6. 정부지출 및 재정수지

:: 2016년 중남미 지역의 정부지출은 일차산품 국제가격 하락과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의 영향으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0.1%)로 돌아섬.

| 이 같은 정부지출 감소는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에서의 지출 축소에 기인함.

• 특히 이들 두 국가에서는 심각한 재정상황을 반영해 2년 연속 정부지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데 반해 재정지출 여력이 큰 칠레에서 정부지출은 소폭 증가함.

주요국의 정부지출 증가율 추이

(단위: %)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르헨티나	3.0	5.3	3.0	6.7	0.3
브라질	2.3	1.5	0.8	-1.0	-0.6
칠레	3.5	3.5	5.2	5.7	5.8
콜롬비아	6.3	9.2	4.7	2.8	2.0
멕시코	3.3	1.3	2.1	2.4	1.2
페루	8.1	5.6	6.7	9.8	1.2
베네수엘라	6.2	3.4	0.7	-3.1	-10.0
중남미	3.2	2.8	2.1	1.3	-0.1

주 | 2016년은 추정치
출처 | Global Insight.

:: 정부지출 감소에 힘입어 2016년 재정수지는 2015년에 비해 소폭 개선됨.
 | 2016년 중남미 지역의 재정수지적자(GDP 대비)는 전년에 비해 1.0% 포인트 감소한 5.6%를 기록함.
 | 국별로는 브라질(-10.1% → -9.0%), 베네수엘라(-15.1% → -14.7%), 멕시코(-3.4% → -2.6%)에서 재정수지적자가 소폭 개선된 데 반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정수지는 악화됨.

주요국의 재정수지 추이

(단위: %, GDP 대비)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르헨티나	-2.0	-1.9	-2.4	-3.9	-4.5
브라질	-2.3	-2.9	-5.8	-10.1	-9.0
칠레	0.6	-0.7	-1.5	-2.2	-2.8
콜롬비아	1.2	-0.5	-2.6	-3.3	-3.7
멕시코	-2.6	-2.3	-3.2	-3.4	-2.6
페루	3.4	2.1	0.9	-1.0	-1.5
베네수엘라	-11.9	-11.7	-14.0	-15.1	-14.7
중남미	-2.4	-2.8	-4.6	-6.6	-5.6

출처 | Global Insight.

7. 실업률

:: 중남미 지역의 경기침체를 반영해 실업률은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2016년 실업률은 전년보다 1.7%포인트 높은 8.7%를 기록함.

:: 이 같은 실업률 증가는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고용시장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됨.

| 심각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브라질의 실업률은 전년보다 3%포인트 증가한 11.3%에 달함.

| 최악의 정치경제 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실업률도 전년 대비 6% 포인트 증가한 12.8%를 기록함.

| 그에 반해 멕시코에서 실업률은 4.4%에서 3.9%로 0.5%포인트 하락함.

주요국의 실업률 추이

(단위: %, 연말 기준)

국가	2012	2013	2014	2015	2106
아르헨티나	7.2	7.1	7.3	6.7	8.6
브라질	7.3	7.2	6.8	8.3	11.3
칠레	6.5	6.0	6.3	6.3	6.5
콜롬비아	10.4	9.7	9.1	9.0	9.2
멕시코	5.0	4.9	4.8	4.4	3.9
페루	6.8	5.9	5.9	6.5	6.8
베네수엘라	7.8	7.5	6.9	6.8	12.8
중남미	7.0	6.8	6.6	7.0	8.7

출처 | Global Insight.

Ⅲ. 금융·외환지표

1. 환율

:: 중남미 대부분 국가에서 환율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커다란 변동성을 보임.

| 그러나 국별로 환율은 상이한 움직임을 나타냄. 미국 대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멕시코와 지속적인 정치·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에서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함.

| 그에 반해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고금리 정책을 실시한 브라질, 콜롬비아 등에서 환율은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섬.

• 특히 브라질의 경우 호세프 대통령 탄핵 이후 신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환율은 2015년 대비 16.6% 하락함.

주요국의 환율 추이

(단위: 달러 대비, 연말 기준)

국가	2012	2013	2014	2015	2106	
					환율	2015년대비 변동률(%)
아르헨티나	4.92	6.52	8.55	13.01	15.85	21.9
브라질	2.05	2.35	2.66	3.90	3.26	-16.6
칠레	478.60	523.76	607.38	707.34	667.29	-5.7
콜롬비아	1,768.23	1,926.83	2,392.46	3,149.47	3,000.71	-4.7
멕시코	13.01	13.08	14.72	17.21	20.73	20.5
페루	2.55	2.79	2.99	3.41	3.35	-1.6
베네수엘라	4.29	6.28	12.00	13.50	672.92	4,884.6

주 | 플러스는 환율 상승(자국통화가치 하락), 마이너스는 환율 하락(자국통화가치 상승)을 의미
출처 | 각국 중앙은행

2. 금리

:: 물가 상승세를 반영해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 단기 금리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 물가상승 압박이 큰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에서 금리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 그 결과 중남미 전체적으로 단기금리는 2015년보다 1.1% 포인트 증가한 12.1%를 기록함.

주요국의 단기금리(연율 기준) 추이

(단위: %)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르헨티나	12.0	14.9	20.4	21.2	24.3
브라질	8.5	8.2	10.9	13.4	14.1
칠레	13.5	13.2	10.8	9.3	10.4
콜롬비아	5.4	4.2	4.1	4.6	6.8
멕시코	4.2	3.8	3.0	3.0	4.1
페루	19.2	18.1	15.7	16.1	16.5
베네수엘라	16.2	15.6	17.2	20.0	21.5
중남미	8.7	8.6	9.8	11.0	12.1

출처 | Global Insight.

3. 소비자물가상승률

:: 2012년 이후 중남미 지역의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 2016년 평균 소비자물가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고물가를 반영해 전년 대비 26.3%포인트 증가한 37.7%를 기록함.

- 베네수엘라의 경우 엄격한 외환통제와 심각한 생필품 부족으로 공식 소비자물가는 794%로 급등함
아르헨티나에서도 전력 등 공공요금의 정상화와 폐소화 가치 급락에 따른 수입품 가격 상승효과로 공식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37.5%를 기록함.

|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자물가 증가는 자국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높은 식품 가격에 기인함.

| 브라질의 경우 고금리와 통화가치 상승에 따른 수입품 가격 하락 효과에 힘입어 2016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소폭 하락함.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연말 기준)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르헨티나	10.1	10.6	21.4	16.4	37.5
브라질	5.4	6.2	6.3	9.0	8.7
칠레	3.0	1.9	4.4	4.4	3.8
콜롬비아	3.2	2.0	2.9	5.0	7.5
멕시코	4.1	3.8	4.0	2.7	2.8
페루	3.7	2.8	3.2	3.5	3.6
베네수엘라	21.1	38.5	57.3	111.6	794.0
중남미	6.0	7.0	8.7	11.4	37.7

출처 | Global Insight.

4. 주가

::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가는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보임.

| 베네수엘라 주가가 전년 대비 117.3% 상승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페루(82.8%), 아르헨티나(44.9%), 브라질(38.9%), 콜롬비아(17.3%), 칠레(14.2%) 주가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를 보임.

주요국의 주가 추이

(단위: 연말 기준)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주가	2015년 대비 변화율(%)
아르헨티나(MERV)	2,854	5,391	8,579	11,675	16,918	44.9
브라질(BOVESPA)	60,952	51,507	50,007	43,349	60,227	38.9
칠레(IGPA)	21,070	18,227	18,870	18,151	20,734	14.2
콜롬비아(COLCAP)	1,833	1,615	1,512	1,153	1,352	17.3
멕시코(PC)	43,706	42,727	43,146	42,977	45,643	6.2
페루(LIMA)	20,629	15,753	14,794	12,901	23,578	82.8
베네수엘라(BC)	471,437	2,736,585	3,859	14,588	31,705	117.3

출처 | Bloomberg.

5. 외환보유고

:: 2016년 외환보유고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8,292억 달러를 기록함.

| 외환보유고 증가와 낮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은 4년 연속 증가 (2016년, 17.7%)함.

:: 국별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환보유고가 증가함.

| 중남미 33개국 중 22개국에서 외환보유고가 증가함. 그중에서도 에콰도르(61.6%), 아르헨티나(46.9%), 엘살바도르(25.0%)에서 외환보유고 증가가 두드러짐.

| 그에 반해 베네수엘라(-28.2%), 볼리비아(-20.3%), 우루과이(-11.7%) 등 10개국에서는 외환보유고가 감소함.

|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이 3,655억 달러로 가장 많은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가 1,768억 달러로 그 뒤를 이음.

• 양국의 외환보유고가 중남미 전체 외환보유고의 65% 비중을 차지함.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말 기준)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르헨티나	43,290	30,599	31,443	25,563	327,210
브라질	373,147	358,808	363,551	356,464	365,556
칠레	41,650	41,094	40,447	38,643	39,468
콜롬비아	37,474	43,639	47,328	46,740	46,974
멕시코	167,050	180,200	195,682	177,597	176,852
페루	64,049	65,710	62,353	61,537	62,049
베네수엘라	29,890	21,481	22,061	16,361	11,748
중남미	835,735	830,018	857,438	811,762	829,202

주| 2016년은 11월 말 기준
출처| ECLAC.

6. 국가신용등급

:: 2017년 4월 기준으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이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의 평가를 받음.

| Moody's, S&P, Fitch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판정을 받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임.

|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가 가장 투자등급이 양호한 국가로 평가됨.

:: 2016년에는 거시경제여건 악화와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반영해 대부분 중남미 국가들의 신용등급 전망이 하락함.

| 대표적으로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됨.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

(2017년 4월 기준)

	Moody's		S&P		Fitch	
	등급	전망	등급	전망	등급	전망
과테말라	Ba1 10/06/01	Stable 16/06/30	BB 06/07/17	Negative 16/10/27	BB 14/06/20	Stable 14/06/20
도미니카공화국	B1 10/04/22	Positive 16/06/29	BB- 15/05/20	Stable 11/06/13	BB- 16/11/18	Stable 16/11/18
멕시코	A3 14/02/05	Negative 16/03/31	BBB+ 13/12/19	Negative 16/08/23	BBB+ 13/05/08	Negative 16/12/09
베네수엘라	Caa3 15/01/13	Negative 16/03/04	CCC 15/02/09	Negative 14/09/16	CCC 14/12/18	- 14/12/18
볼리비아	Ba3 12/06/08	Negative 16/06/10	BB 14/05/15	Stable 14/05/15	BB- 16/07/13	Stable 16/07/13
브라질	Ba2 16/02/24	Stable 17/03/15	BB 16/02/17	Negative 15/07/28	BB 16/05/05	Negative 15/04/09
아르헨티나	B3 16/04/15	Positive 17/03/06	B- 16/05/06	Stable 16/05/06	B 16/05/10	Stable 16/05/10
에콰도르	B3 14/12/19	Stable 12/09/13	B 15/08/12	Stable 14/08/14	B 13/10/18	Negative 16/08/25
엘살바도르	B3 16/11/07	Negative 16/11/07	B- 16/12/09	Negative 16/12/09	B 17/02/01	Negative 17/02/01
우루과이	Baa2 14/05/29	Negative 16/06/22	BBB 15/06/05	Negative 16/06/03	BBB- 13/03/07	Stable 13/03/07
칠레	Aa3 10/06/16	Stable 10/06/16	AA- 12/12/26	Negative 17/01/26	A+ 11/02/01	Stable 11/02/01
코스타리카	Ba2 17/02/09	Negative 17/02/09	BB- 16/02/25	Negative 16/02/25	BB 17/01/19	Stable 17/01/19
콜롬비아	Baa2 14/07/28	Stable 14/07/28	BBB 13/04/24	Negative 16/02/16	BBB 13/12/10	Stable 17/03/10
트리니다드토바고	Baa3 16/04/15	Negative 16/04/15	A- 16/04/22	Negative 15/12/24		
파나마	Baa2 12/10/31	Stable 12/10/31	BBB 12/07/02	Stable 12/07/02	BBB 11/06/02	Stable 11/06/02
파라과이	Ba1 15/03/20	Stable 15/03/20	BB 14/06/11	Stable 16/06/15	BB 15/01/29	Stable 15/01/29
페루	A3 14/07/02	Stable 14/07/02	BBB+ 13/08/19	Stable 13/08/19	BBB+ 13/10/23	Stable 13/10/23

출처: Moody's, S&P, Fitch.